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의결안건 제252호(2021) 관련)

2022. 1. 5.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2년 1월 5일(수) 10:00~16:05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도 규 상 위 원 장

*의결 제1호~제2호 및 제251호(2021년), 제252호(2021년)

이 명 순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송 창 영 위 원

4. 회의경과

□ 의결안건 제252호(2021) 『○○○○(주)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위원) 진술인의 추가진술서를 보면 제178조제1항제1호는 포괄적인 조문이기 때문에 제178조제1항제1호 단독으로 처분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금감원 의견은 어떠한지?

- (보고자) 지금 제178조제1항제1호하고 위계나 이것이 같이 올라가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제1호로 조치처분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진술인)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제2항과 제1항제2호를 병행해서 처벌한 사례는 있지만 제1호가 어떤 사례인지는 발견하지 못했음.

○ (위원) 제1항제1호만을 단독으로 적용한 사례가 무엇인지 설명바람.

- (보고자) 현재 판례를 가지고 있지 않아 추후 다시 보고 드리겠음.

○ (위원) 알겠음. 그리고 제178조제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계에 해당되어야 되는 것이고, 위계를 사용한 것에 대한

논거는 어떻게 제시 할 수 있을지?

- (보고자) 위계 사용 부분에 대해서 불특정다수의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자기주식취득으로 가장공시한 점, 특정인과 통정매매를 통해서 자기주식을 취득한 점, 이 두가지를 위계 사용으로 보고 있음.

▶ (진술인) 주주가치 제고 목적은 허위공시가 아니라고 판단했음. 그리고 특수관계인을 통해서만 자사주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 일반투자자들로부터도 계속 자기주식을 취득했음. 또 하나는 통정매매를 통해서 매입한 것 자체가 위계라고 하셨는데, 통정매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매 유입 목적의 통정매매는 아니고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동시에 낸 것은 매도주문이 대폭 나왔을 때 주가가 대폭 하락할 경우를 방지하고자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같이 매칭(matching)을 시켜 한꺼번에 나가도록 한 것이었음. 그것이 더 적합한 방식이라고 당시에는 인식하고 있었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통정매매 행태 자체가 잘못됐다면 그것은 제178조의2에 따라서 얼마든지 제재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2항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음.

- (위원) 제2항 위계를 적용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인 금융투자상품 매매 목적, 저가매도 회피 목적에 대해서는 답변 안해 주셨음.

▶ (진술인) 저가매도 회피 목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제178

조2의 제2항 손익이전을 목적으로 그 부분과 동일한 목적으로 보임. 위계의 사용이라는 것은 사실 시장참가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해서 속이는 행위, 특히 제178조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규정이기 때문에 고의범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위계를 사용해서 시장참가자들을 속이겠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님.

- (위원) 그 당시 ▲▲▲씨 지분이 6.11%이고 2차 때는 지분이 3.53%였음. 그런데 실제로 매입한 것은 ▲▲▲씨 지분에 대해서 1차 때는 전체 매수한 것의 54.8% 그리고 2차 때는 75.7%,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과 실제로 매입한 비율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음. 그러면 이것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평하게 평등원칙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지?

▶ (진술인) 타사에서도 자기주식취득 보유 물량 전체를 거의 100% 가까이를 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한 사례들이 있음.

- (위원) 대주주 장내매매 주식 등을 자사주로 취득한 사례 9가지를 추가진술서에 제시를 해 주셨음. 그 9건에 대해서 금감원에서는 ▷▷▷▷▷와 ▶▶▶▶▶▶▶▶▶▶은 대주주의 장내매도 주식 등을 자사주로 취득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보고자) 실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기간 중에는 대주주가 직접 주식을 매도한 사례가 없었음. 지금 변호인에게서 주장

하시는 것처럼 대주주가 직접 자기 회사의 자기주식으로 매
매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음.

○ (위원) 대리인께서는 통정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는지?

▶ (진술인) 단순히 매도가 될 주문을 따고 있다는 부분에 있
어서는 통정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음.

○ (위원) 그러면 통정은 인정을 하시는 것인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관련해서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할 때 임시이사회 이전에 사전 작업 같은 것을 하지 않
는지?

▶ (진술인) 아님. 저희가 2월22일은 1차 자기주식 취득이 종
료된 날인데 그날을 정보생성일로 금감원은 보고 있는데
그날에는 추가적으로 자기주식 취득하겠다는 결정이 있거
나 그런 정보생성은 전혀 없었음. 이사회에서도 만장일치
로 결정해서 공시를 바로 하게 된 경우(case)임.

○ (위원) 금감원은 왜 2016년 2월22일을 미공개 정보생성시점
으로 파악하셨는지?

- (보고자) 자기주식 취득신고를 해서 예정수량을 다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자본시장감독규정에 따라서 1개월 동안 추

가취득을 못하게 되어 있음. 그래서 취득계획이 예컨대 60만 주 취득하겠다고 했는데 60만주를 다 취득하지 못하면, 1차 때 50 몇 만 주를 취득했는데 다 취득 못했기 때문에 그 불이익(penalty)으로써 1개월 간 추가적인 이사회 결의를 못한다고 되어 있음. 그래서 규정상 가능한 것은 1개월 지난 3월 23일부터 추가 이사회 결의가 가능한 시점이 됨.

- (위원) 지금 제시하셨던 10개의 자사주 취득 사례와 ○○○○의 사례 차이점은 무엇인지?

▶ (진술인) 10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장내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입을 하는 것임.

- (위원) 충분한 거래량이 있었다는 말씀인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아까 대리인에게서 말씀하실 때 제178조제1항제1호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포괄적·추상적 규정이기 때문에 이 조항만 가지고 처벌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해당될 경우라도 이것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째서 “이것은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지?

▶ (진술인) 저희는 사실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는 시

장질서 교란행위를 포함한 모든 경우가 부정하다고 하려면 부당하고 불법적인 것이 다 포괄될 수 있다고 생각함. 그래서 결국에는 불법성 정도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음.

- (위원) 그런데 불공정거래법 체계는 고의성이 있고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이면 형사 처분의 대상인 불공정거래로 가는 것이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만 교란행위로 가는 것인데,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는 인정을 하시는 것인지?

▶ (진술인) 아님. 이것이 문제가 된다, 범법행위다, 이것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에 해당한다는 인식 자체를 하지 못했음. 고의성 자체가 없었음.

- (위원) 자기주식취득을 하면서 다른 투자자들의 매도 기회를 줄이기 위해서 대주주 측과 사전에 주문시기와 주문가격을 서로 지정해서 하는 형태가 통상적인 형태인지? 아까 예로 제시한 여러 가지 사례에 비추어 봐서 이것이 통상적인 자기주식 취득 취지에 맞는 거래형태라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 (진술인) 통정이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은 수궁을 함. 그렇지만 저희는 이것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에 해당한다고 보기보다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정도의 손익이전 목적이고, 시세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정도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음.

○ (위원) 통상적으로 그런 대량거래에 의해서 가격이 크게 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간외매매를 많이 하는데 시간외매매를 하지 않고 굳이 장내거래를 통해서 이런 형태로 거래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 (진술인) 그 당시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못했음. 그 부분을 간과했던 것이 잘못된 것 같고, 다만 저희가 ◆◆◆◆과 ○○○○한테도 제안했고 다른 증권사도 다 제안을 했는데 사겠다고 한 곳이 두 군데였고, 더 이상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사람들을 구할 수가 없었던 측면이 있었음.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었음.

○ (위원) 자기주식취득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와 관련해서 자기주식취득 시기와 가격 또는 여력 등등 내부적으로 실무적인 검토를 거치고 이사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진행이 된 것인지?

▶ (진술인) 그렇게 알고 있음.

○ (위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실무적인 검토 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임.

▶ (진술인) 이사회에 안건을 올려서 이사회에서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수단에 대해서도 이사회에서 논의가 됐다고 알고 있음.

○ (위원) ▲▲▲씨가 고령이고 그 당시 기준으로는 얼마 더 생존하시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급히 보유주식을 처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이 매도주문은 누가 한 것인지?

▶ (진술인) 저도 했고, 개인비서한테도 그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고인(故人)은 회장님이라고 칭하고 □□□ 사장님은 대표님이라고 칭하고 질문을 하겠음. 2016년 5월에 회장님이 고인이 되셨는데 2차는 2016년 3월말에 이루어졌음. 그러면 사실상 이것은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이 사실상 매도자 측인 회장님의 뜻을 대신하고 또 자사주 매입하는 회사 측도 대표님이 당연히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양측을 다 대표님이 대리해서 매매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음.

▶ (진술인)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저도 인식을 하고 있음.

○ (위원) 이후에 회장님이 매도한 매도대금을 재단에 기부를 하는데, 그 재단은 누가 운영하는 것인지?

▶ (진술인) 재단이사장은 저희 형님임.

- (위원) 저가매도가 불가피한 부분을 고가매도 하고 매도대금은 전부 가족이 운영하는 재단으로 기부했다는 측면에서 금감원이 주장하는 “고가매도+상속세 회피”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함.
- (위원) 진술인측에서 자사주 취득 시에는 특정주주 주식을 취득할 목적을 기재해야 하는 것이 공시서식기준에 없기 때문에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 금감원의 의견은 어떠한지?
- (보고자) 기재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사주 제도의 취지를 봤을 때 모든 주주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정한 비율을 준수하면서 자사주를 취득·매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 취지로 봤을 때는 특정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공시규제로 포함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임.
- (보고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인의 대량 매도 때문에 자기주식을 취득한다는 공시가 나갔을 때 일반주주들이 이 주식을 샀을까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음. 그런 측면에서 부실기재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함.
- (위원) 진술인 쪽에서 통정매매는 깨끗하게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금감원이 얘기하는 것은 통정매매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통정매매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진술인 측은 그냥 통정매매이기 때문

에 아무런 불법 목적이 없는 통정매매는 허용이 된다는 의견인 것인지?

- ▶ (진술인) 아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하다는 부분이 저가 매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손익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과 등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와 같이 손익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정매매를 한 경우에는 제178조제2에서 명확하게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178조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미공개정보이용과 관련하여 이 건이 미공개정보이용에 해당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금감원에서 이 부분은 반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지금보다 좀 더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람.
- (참여자) 주가 하락의 심각성을 대표이사님께서 느끼고 계셨을텐데 그 부분의견은 어떠한지?
- ▶ (진술인) 그때 장외거래라든가, 다른 매수처를 구하지 못했고, 또 그 당시에는 자사주 취득만이 마지막 카드였던 것 같음.
- (참여자)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음. 금감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된 큰 그림은 경영권 유지를 위한 주식 보유라고 되어 있음. 그때 당시 ○○○○○이 10만, ◆◆◆◆이 5만으로

그 15만주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수치였는지?

▶ (진술인) 제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그 당시에 20 몇 퍼센트였는데 그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르신이 다시 사면 안 되겠느냐고 해서 우리 집사람 ●●●하고 ♠♠♠, ♠♠♠ 세 모녀가 사게 되었고, 그 당시에 받은 배당금이라든가, 이자소득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산 것임. 단순히, 지분율 확보를 위해서 매수했던 것임.

○ (참여자) 지분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인지?

▶ (진술인) 그러함.

▶ (진술인) ○○○○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서 대주주 지분이 60% 정도여서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지분율 더 매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은 아님.

○ (참여자) 그런데 지금 대표님께서서는 지분율 높일 필요성이 있어서 그 15만주를 매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경영권 유지나 이런 목적에서는 15만주가 필요 없다는 변호인 주장과 약간 다른 것 같음.

▶ (진술인) 지금 우리 변호인이 얘기하는 것은 전체, 그러니까 저희 가족, 문화재단, 비영리법인을 비롯해서 학교법인이라든가, 대주주 특수관계인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한 것은 저희 가족들 지분율 30%까지 높이기 위해서 샀다는 말씀임. 60%와는 전혀 무관한 얘기임.

- (위원) 방금 대표님께서 진술하신 내용 중에 제가 처음 듣는 진술이어서 이 35만주를 2015년 11월18일경에 ○○○○/◆◆◆◆으로 넘긴 이유가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할 때는 3%를 적용 받는데 최대주주 쪽 지분은 3% 이상 의결권 행사가 안 되니까 감사선임에 있어서 우호지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나 ◆◆◆◆으로 넘겨주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진술인) 그러함.

- (위원장) 위원님들의 질문 과정에서 요청하신 자료들, 혹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금감원 측에서 추가 작성하셔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고, 진술인 측도 오늘 다 소명이 안 되었다고 판단되면 증거자료를 포함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술인이 퇴장함.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